



주 제:	“일치의 성령.”	“성령강림 대축일” (다해)	2007년 5월 27일
복음 묵상:	[요한 20,19-23]	[사도 2,1-11]	[1 고린 12,3 나-7.12-13]

다락방에 숨어 지내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문을 박차고 나와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동안의 부끄러웠던 과거의 모습, 공동체 안에서 형제적 일치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모습, 또한 영적으로 나태해져 불신하고 소극적이었던 우리의 신앙심을 떨쳐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에서 아니면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께 받은 느낌 그대로 진리를 위해, 그리고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과 진정한 평화를 통해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일치될 이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친교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그 교회에 속한 우리 신자들의 몫인 것입니다. (인천 윤승일 신부님 강론에서)

성가대 소식

- 30주년 음악제 준비를 위한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않은 연습기간중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일) 오후 미사 연습후 음악제에 관하여 간단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가족 동정**
 - 한국에 다녀오신 **윤안도 요셉 형제님께서** 오시면서 특송에 사용할 수 있는 악보집과 여러 점의 좋은 악보를 성가대를 위하여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6/1 유비오 지휘자님과 요안나 자매님 쌍둥이 손녀들의 백일을 맞아 2주 여정으로 동부에 가십니다. 기쁜 만남으로 좋은 여행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 안영희 세실리아 자매님 고국방문마치고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안호삼 프란치스코 형제님은 한국에서 6개월 연장 근무하시기로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기도 요청**
 - 북가주 여성 제 7차 꾸르실료에 성가대 가족중에 김재훈 세실리아, 강인정 세실리아 자매님이 5/31-6/3(일)까지 교육에 들어가십니다. 주님의 사랑안에 흠뻑 젖어 나오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로써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 꼬플랭코 수녀님 5/21-5/31 까지 피정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많은 은혜받고 돌아오시도록 기도로 함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복음 [요한 20,19-23]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 오셔서 그들 한 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것이다."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 그 부활시기를 지내고 있다. 새 생명에 대한 기쁨과 그 기쁨이 가져다주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지내고 있다. 부활시기는 50일간 지속된다. 40일째에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내고(우리 나라에서는 가까운 주일에 지냄), 50일째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거행한다. 성령의 강림은 그리스도 부활의 완성이며 종결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아라.'고 하셨다(요한 20,22 참조). 곧 부활의 새 생명은 하느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으로써 그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다.

성령의 강림은 부활의 마지막 사건이다. 성령 강림 대축일로 부활시기 50일이 막을 내린다. 성령 강림의 의미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죄의 용서'와 '부활로 인한 새 생명의 활동'이라 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의 활동이 성령이시다.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하느님의 능력이 성령이시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그 결실을 맺는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결실이다



Veni Sancte 오소서 성령이여 Spiritu

구약의 시대를 하느님의 시대,
그리고 신약의 시대를 예수님의 시대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활동 안에서 새로워 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

성령 강림 대축일은 교회 설립 기념일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백성에게 선포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이어서 세상 종말까지 지상의 나그네요 순례자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여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구현할 사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탄생, 즉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의 탄생과 그 시작은 성령의 놀라운 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힘은 인종과 나라의 온갖 장벽과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착함, 신용, 온유, 절제입니다." (갈라 5,22)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삶에서 맺는 열매로 알아볼 수 있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 7,17)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신자들이 맺을 수 있는 삶의 열매를 바오로 사도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착함, 신용, 온유, 절제입니다." (갈라 5,22)